



# “광주에 진 빛 같으려면 당당 멀었습니다”

김재석 시인 ‘광주-5.18’ 펴내 ‘광주’ ‘인문대 담장 뒤 하숙집’ 등 당시 정황·참상 70여 편에 담아 하숙집 피신 온 박관현 모습 생생



김재석 시인

김재석 시인은 5.18 당시 전남대 인문대 담장 뒤 마을에서 하숙을 했다. 40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시인은 5월 18일 새벽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시인이 80년 광주를 소재로 한 시집 ‘광주-5.18’을 펴냈다. 70여 편의 시는 당시 북학생 신분이었다던 시인이 광주에 빛진 마음을 담아 풀어낸 작품들이다.

“5.18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싶어요. 감히 5.18에 대하여 쓸 생각을 하니... 광주에 진 빛을 같으려면 당당 멀었습니다.”

시인은 작품을 건네며 연신 자신을 낮췄다. 특유의 전라도 방언의 억양이 “나는 태생적으로 남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금까지 시인은 남도를 배경으로 ‘목포’, ‘그리운 백련사’, ‘조금새끼’ 등의 의미있는 창작집을 발간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시집을 내게 됐어요.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말쑥단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5.18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시집에는 ‘광주’, ‘인문대 담장 뒤 하숙집’, ‘말뚝동에서’, ‘김남주’, ‘사자공원은 5월이 무거운 집이다’ 등 당시 정황과 참상을 환기하는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시인은 80년 5월 18일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계엄군이 인근에 진을 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던 즈음이었다.

“그날 새벽에 전대학생회장이었다던 박관현(법대생)과 설의부장 이정조(영문과생) 두 사람이 제가 하숙하고 있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인문대 뒤 옹봉동에 있는 하숙집이었죠. 다다다닥 불은 6개 방 가운데 맨 왼쪽 방이 법대생의 방, 오른쪽 끝방이 제 방이었어요. 아마 철야농성을 하다가 공수부대원들이 교내로 들어오자 하숙집으로 피신한 것 같아요. 박관현은 하숙집 법대생 방에서, 이정조는 제 방에서 아침까지 머물렀습니다.”

18일 아침, 이상하게도 법대생이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2학기 때) 알게 됐지만 당시 법대생은 박관현의 부탁을 받고 학교의 상황을 보러 간 거였어요. 공수부대원에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말을 잘 해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시인은 평소대로 18일 아침 학교(전남대)에 갔다. 중앙도서관에 갇혀 학생들의 모습

을 볼 수 없었다. 대신 학생회관 쪽에서 공수부대원이 불려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당시 학생처장이었던 김태진 교수와 공수부대 대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태진 교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학생들을 걱정하는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북학생인데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다” 하니까 공수부대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는 보내 주더라고요.”

그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이상황을 박관현과 이정조에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사라졌다. 박관현은 그 길로 하숙집을 나와 농대 뒤편을 거쳐 운산원의 집으로 갔던 모양이다.

“역사의 산증인이 따로 없다// 인문대 담장 뒤 하숙집들이/ 다 역사의 산증인이다// 인문대 담장 뒤 창 들고 시위하던/ 탱자나무들이/ 다 역사의 산증인이다// 탱자나무에 피신하여/ 포를 즐기던/ 참새들이/ 다 역사의 산증인이다”(‘인문대 담장 뒤 하숙집-서시’ 중에서)

위 시는 당시 느꼈던 심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시인은 이번 작품집은 “당시 평범한 학생으로 겪어 지냈던 이의 빛진 마음을 담아낸 것”이라며 “비판 받을 일만 남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큰 사건을 몇 번이나 겪을까요? 달리 말하면 이런 세상은 처음 살아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5.18은 부마민주항쟁을 통해 선수학을 한 신군부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희생을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펴내기 위해 다양한 책을 탐독했다. 그 가운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스물두살 박기순’, ‘녹두서점의 오월’ 등에서 적잖은 도움을 얻었다. 시인은 미완의 5.18 진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관점을 견지했다. ‘신군부에 대한 광주시민의 불복종’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벌써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광주에 진 빛이 많아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한은 4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의 진상이 날났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한편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은 이번 시집과 아울러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룬 시집도 펴냈다. 제4·3. 여순항쟁, 부마민주화운동 등을 소재로 다룬 작품집은 그러한 연장선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전남도립국악단 신임 류형선 감독 “국악을 세계적 음악으로... 현대화·대중화 앞장 설 것”

“전남도립국악단의 악가무타(樂歌舞打)로 대변되는 예술적 언어들이 대중을 비롯한 이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평화의 오감’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감독으로서 이뤄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형선 예술감독

지난 3월 취임한 류형선(56)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27

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국악의 전통성만으로는 대중들과 소통하기 어렵다며 국악을 세계적인 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현대화,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류 신임감독은 지역 예술단만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연을 개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할 계획이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공개한 뮤지컬 ‘꿈아 꿈아 꿈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토요일 공연 ‘감성여행전’이 그러한 과제 수행의 첫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류 신임 예술감독은 또 “단원 개개인에 맞는 기량을 높이는 것 또한 예술감독의 주요 임무”라며 “음반 프로듀서로서 국악단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작품 개발과 지속적인 음원화 작업을 통해 국악단을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선보일 정기공연 ‘봄날(가제)’에 대해서도 이날 공개했다. ‘봄날’은 5.18 민주화운동을 ‘오라토리오 집체극’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18 민주묘지 참배와 함께 꼭 봐야 할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시민들로 하여금 전남도립국악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류 신임감독의 생각이다.

“5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5.18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며, 늘 빛진 심정으로 갇히거나 할 사명감과 같아요. ‘봄날’을 통해 역사를 담고 오늘을 비추는 예술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출신인 류 신임 예술감독은 한양대 유대 작곡가와 한예종 전통예술원 전문사를 졸업했고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서울대, 한예종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경기예술창작소 수석마스터, 정동극장 이사를 맡고 있다. 대표작으로 음악극 ‘현의 노래’, ‘달빛에 잠들다’, ‘공무도하’가 있고 국악동요 ‘내 품에는 힘이 좋아’, ‘모두 다 꽃이여’를 작곡했다. 기독음악대상(1995), KBS국악대상(2008)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같은 공간 다른 느낌... 하나된 감성

“따로 또 같이.”

조각가와 서양화가, 서예 작가와 한국화가.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카페 힐사이드 양림(광주 남구 우월순길 12)은 서양화가 한희원, 조각가 김지숙을 초청해 오는 8월16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양림안뜰에서 만난 봄날의 사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카페 3층 공간을 모두 활용해 보물창가히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 작가

힐사이드 양림, 화가 한희원·조각가 김지숙 전 갤러리 관선재, 한국화가 설수정·서예 최영호 전

는 두터운 집감을 살린 꽃그림과 풍경화 등을 다채로운 크기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조지아에 머물며 다양한 작업을 해온 한 작가는 조지아 풍광과 함께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담았다.

김지숙 작가는 인물 조각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물 조각상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갤러리 관선재에서 전시 중인 최영호 작가의 서예 작품(왼쪽)과 설수정 작가의 한국화.



카페 힐사이드 양림에서 열리는 서양화가 한희원, 조각가 김지숙 전시회.

건 자유롭게 뻗은 나뭇가지와 달이다. 자그마한 새를 어깨에 엮고 있는 조각도 있다. 김 작가는 순천 지역의 집 갤러리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11월 도예 공방’을 운영중이다.

예술의 거리 갤러리 관선재(광주시 동구 공동 61-2)에서는 한글 서예 작품과 한국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6월 1일까지 열린다.

한국화가 설수정 작가는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를 주제로 사계절 풍광을 담은 채색화를 선보인다. 또 초록, 파랑, 자주 등 다양한 배경색을 바탕으로 매화 등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배치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설 작가는

현대사생회, 청목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현대공간조형 대표를 맡고 있다.

일연 최영호 작가는 ‘글썩은 나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한글 서예 작품을 선보인다. 나태주 시인의 시, 일연 스님의 글귀 등 삶에 도움이 되는 글귀들을 개성 있는 한글 서체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남대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한 최 작가는 광주시·전남도 초대작가로 활동중이다.

두 사람은 이번 전시 후에는 장성 기자 갤러리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설 작가는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최 작가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